

개성화를 위한 영적 안내의 상징으로서의 지팡이 The Staff as a Symbol of Spiritual Guidance for Individuation

소 병 혜*

So Byung H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taff from an analytical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symbol of the staff may be seen as the world tree, as an axis connecting God and man. This is the driving force of individuation, which integrates human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while discovering and accepting the true Self. Humans realize Self through consciousness of the inner personality by constantl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inner world of unconsciousness. They desire to constantly communicate with God, and they want to live a symbolic life through transformation. As a spiritual guide, the staff is an archetype of the therapist. It also contains the meaning of the world tree praying for unity with God in the process of human personifi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aff that has transformed from alchemy to spirit, the staff that symbolizes the call of God in religious terms, the staff of the resurrected symbol that was reborn as the world tree, and the individuality realized through the symbolism of the staff.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taff as a spiritual guide is an indicator of individuation that is constantly reborn by transformation and reproduction.

Keywords : staff, symbolism, axis mundi, ego-self axis, individuation

*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슬파란아동연구소 상담실장 (bhso2002@hanmail.net)

I. 서론

지팡이(杖)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인간이 만든 매우 의미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만 가끔 볼 수 있을 뿐 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실정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지계의 지팡이, 승려의 지팡이, 도사의 지팡이 등 활동 보조 장비와 방어나 무기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팡이는 실용적인 기능 외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지팡이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적 의미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지팡이를 꼽을 수 있다. 남성적인 힘, 권위, 위엄을 나타내며, 석장(錫杖)과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다 (Cooper, 1978/1994). 서구 유럽의 경우 귀족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손에 드는 경우가 있다. 페루 안데스 산지의 케추아족은 마을의 고위직에 오른 자가 ‘바라’라는 지팡이를 가졌으며, 고대 이집트에도 왕홀(王忽)이 있었다. 불승이나 수협자의 석장, 중국의 선인이나 유럽의 마법사의 지팡이도 역시 사회적 지위 또는 직능의 상징으로 불렸다. 끝이 구부러진 케인이라는 지팡이는 힘과 권력, 나아가 권위와 사회적인 명성의 상징으로 점차 알려지기 시작 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팡이는 리더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중세교회에서 지팡이는 직무 권한, 즉 품위와 관할권을 상징했다. 이렇듯 지팡이는 고대사회에서 상징성이 높은 도구였고, 중세에는 군주나 승려의 표상이었다(한국사전



그림 1. Yggdrasil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게르만 민족의 신화를 북구신화라고 한다. 북구신화는 이미르 피로 만들어진 끝없는 바다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한 안개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의 중간에는 커다란 원형 대지가 중심을 잡고 있고, 대지 밑에는 소인족이자 검은 요정들의 나라인 스마르트알바헤임이 존재한다. 원형의 대지 주위에는 거대한 세계뱀인 요르문간드(Jornungander: 대지의 지팡이)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으며, 바다 밑이나 먼 섬에는 바다의 거신인 에기르(Egir)의 황금빛 궁전이 존재한다. 물푸레나무로 만든 거대한 위그라드실은 우주수, 세계수를 상징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연구사, 1998).

또한 지팡이에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성적인 의미도 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증거물이다. 안데스 문명에서는 수천 년간 지팡이를 가진 신이 대표적인 모티브가 됐다. 동아프리카의 테소족의 여성이 가진 봉은 임신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 잉카제국의 시조전설에도 지팡이가 등장한다. 초대 왕이 황금 지팡이를 던져서 수도로 삼을 땅을 찾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김경필, 2015).

양치기의 지팡이(Crook)는 권위, 지도, 재판권, 자비, 신앙을 뜻하며, 모든 선한 목자의 부수물이다. 고대 근동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왕의 표지중의 하나이다. 이집트의 왕은 민족을 인도하고 기르는 양치기이며 왕홀로써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다. 기독교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선한 목자인 <예수>와 사도가 가지는 지팡이를 나타내며, 신도의 무리를 인도한 목자로서의 사제의 부수물이다(Cooper, 1978/1994).

고대 이집트 신들 중에는 독특한 형태의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령 신 헤르메스(메르쿠리우스)같은 신의 사자나, 혼을 다른 세계로 인도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혼의 인도자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 이집트의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는 죽은 자를 재판하는 신 오리시스의 부수물이다(Cooper, 1978/1994).

한편, 마법의 힘이 깃들인 지팡이(Wand)도 있다. 마법사의 부수물로써 마력을 행하는 지팡이는 힘을 나타내며, 초 자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모든 마법사들, 사만들, 주술사의 부수물이다. 잠의 신 휘프노스의 지팡이에는 잠과 망각을 주는 힘이 있다(Cooper, 1978). 지팡이의 마력에 관해서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리포터』에서도 지팡이는 성스러운 나무로 만들어졌다. 한편, 게일 사람들의 마법의 ‘흰 지팡이’는 주목(朱木)으로 만들어졌는데, 불사의 상징이나 마력을 가진 나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Cooper, 1978/1994).

이렇듯 지팡이의 특징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다양한데, 이런 인간정신의 집단 무의식에 내재하고 있는 원형은 강렬한 정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원형의 상징적 의미는 언어로 완전하게 설명 될 수 없다. 상징은 사물 자체의 본래 의미가 아닌 원형적 에너지가 투사되고 정서적 어려움을 일으키는 대극 간 긴장을 합일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게 된다(김은숙, 2011).

지팡이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축으로써 대지와 영,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팡이의 신성한 힘은 천지를 관통하는 세계 축, 우주 축이라는 사상과 상통한다(Cooper, 1978/1994). 엘리아데에 의하면 주목은 세계축의 상징이며, 그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가 세계 축을 전해서 지상에 미치는 초자연적 힘을 갖고 있다. 주목은 뿌리가 지하에 뻗치고, 나뭇가지가 천공에 뻗치기 때문에 많은 민족 문화 중에서 땅과 천공을 연결하는 우주 축(세계 축, axis mundi)으로 이를 ‘중심의 심벌리즘’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그림 2. 우주수를상징하는 나무

<http://www.sandplay.or.kr>

우주축의 관념중 대표적인 것은 스칸디나비아에 전해지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물푸레나무, 위그드라실(Yggdrasil)이다. 이 나무는 죽음에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영원히 회귀하는 우주를 상징한다(Eliade, 1949/2003). 우주적 생명의 무한한 원천인 풍요성과 신성성을 갖는다. 우주수, 즉 하늘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이어준 연결고리인 것이다. 인간이 신과 연결되고자 하는 추동은 개성화의 추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무는 Self와 ego 사이의 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자아와 자기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 의사소통으로 인해 삶에 대한 열망과 충동을 Self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Kast, 1992). 따라서 나무는 개성화의 상징이고, 지팡이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심리치료 장면에서 꿈이나 모래놀이를 통해 지팡이를 언급하는 내담자를 종종 볼 수 있다. 40대 후반 우울한 여성은 초록색 뱀이 감긴 지팡이를 품에 안은 꿈을 통해 치유에너지를 경험하였고,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결국 개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개성화란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아가 무의식의 내부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적 인격을 의식화하여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고통 앞에 설 때 간절함으로 절대적 존재를 의지한다. 끊임없이 공동 창조자로서 신과 소통하고자 열망하며, 변환을 통해 상징적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것이 개성화의 길이다.

인간의 개성화 과정에서 신과의 합일을 기원하는 우주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팡이는 영적 안내자이며 통로의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영적(spiritual)이라는 개념은 신성의 영역과 연결되는 정신세계, 즉 더 큰 실재와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자기(Self)에 이르는 것이다.

(Waaijman, 2002).

이에 본 연구는 영적 안내 역할을 하는 지팡이에 대한 상징성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개성화 과정에서 이 원형 에너지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치료자 원형으로서 지팡이

치료자 원형의 상징은 각종 신화에 나오는 의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의 아스클레피우스, 우리나라의 삼승할망, 바리데기뿐 아니라 각종 종파에서의 최고의 존재, 그리스도, 부처, 옥황상제, 게르만 신화의 오딘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며 이승의 낮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는 통과의례(initiation)의 중요한 스승이기도 하다. 인간의 고행을 지켜보며 그것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단계의 삶의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부영, 2003).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지팡이는 하나의 뱀이 몸을 말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Rod of asclepius 라고 부른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뱀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며 의학의 신이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버지 아폴론에게서 의술을 전수받아 명의로 이름을 떨치며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자 지옥을 관장하는 하데스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뒤 의신(醫神)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그를 기리는 신전에는 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뱀은 신비로운 동물로써 대지의 생명력, 또는 대지의 비밀을 아는 영험한 동물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특히 뱀은 허물을 벗고 점차 커지기 때문에 지혜로움과 부활, 치유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스신화는 뱀을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재생의 상징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구약성경의 요나가 그랬듯이,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도 거대한 뱀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새 생명을 얻어 나오고, 헤라클레스도 거대한 뱀이 삼키는 바람에 그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에 그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온다. 이렇듯 그리스 신화에는 이승과 저승의 중재자, 순환하는 것, 들고 도는 것의 상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죽음의 상징, 재생의 상징,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중재자의 상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지 않은 세 가지 모습인 것이다.

의술을 상징하는 엠블렘에 지팡이와 뱀이 그려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뱀의 독을 치료약으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나 환자의 주변을 뱀이



그림 3.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http://blog.daum.net/ceta21/10102266>



그림 4. 전령 헤르메스
<http://www.inven.co.kr/board>

다니게 하는 주술적인 치료 방법이 존재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의료인과 뱀의 조합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뱀 두 마리가 비비꼬며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카두세우스(Caduceus)’ 이라고 한다. 이 상징은 신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의 상징으로 헤르메스가 주관하고 수호하던 상인, 도박꾼, 도둑, 목동, 죽은 자들의 부적을 상징한다. 지팡이 중에서도 특히 전령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우주 축을 의미하며, 전령신은 이 축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왕래한다. 지팡이는 사자(使者)가 평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가지고 다니며, 사자의 부수물중에서도 아주 중요하다(Cooper, 1978/1994). 산 것을 잠재우는 최면장을 들고 이승과 저승 출입을 임의로 하는 제우스의 사자 헤르메스의 지팡이에는 뱀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헤르메스가 싸우고 있는 두 마리의 뱀 사이에 이 지팡이를 놓아 싸움을 멈추게 한 이후로 그의 지팡이에는 두 마리의 뱀이 감기게 되었다. 헤르메스는 <프쉬코포포스> 즉 ,<영혼의 안내자>로 불려졌다. 그의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달린 날개는 초월, 공기를 상징하고 지팡이는 힘을 상징한다. 마주 보는 두 마리의 뱀은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이원적인 대립물, 대극을 상징하는 것이다(Gerold, 2000/2001).

성서 출애굽기에 마라의 물에 관한 이야기(출애굽기 15:22-27)가 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으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하여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간 방황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샘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백성의 원망의 소리에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 후 신의 계시에 따라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고, 그러자 쓴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인간은 간절함으로 신을 찾았고, 순응적 태도를 보이자 기적의 단물로 바뀌어 진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였으므로 물의 쓴 맛을 정화 시킨 것은 치료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대사회에서는 의사가 귀했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단물을 마심으로써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여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소망의 상징적 의미까지 담겨 있다. 그래서 이곳을 치유적 의미에서 ‘모세의 샘’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무 가지에 신이 붙여넣은 생명의 혼이 들어가면 수많은 이들을 새롭게 살리는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2. 연금술에서 영(靈)으로 변환을 갖게 하는 지팡이

메르쿠리우스(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중세에 연금술이 발전하면서 연금술에 사용되는 기호로서도 사용된다. 연금술에서 두 마리의 뱀은 남성인 황과 여성인 수은, 번식력과 잠드는 것과 깨어남을 뜻한다. <대작업>에서의 용해와 응고, 대립물의 통합과 천상계와 하계를 매개하는 초월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지팡이는 연금술에서 황금을 만들고 호문클루스를 제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재료였다(Cooper, 1978/1994).

15세기에 쓰여진 연금술 책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메르쿠리우스의 삽화로 실렸는데, 메르쿠리우스가 손에 든 뱀 지팡이는 대립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화해하는 통합을 상징한다. 이러한 통일이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메르쿠리우스 자신이다(Cooper, 1978/1994). 메리쿠리우스는 질료 안에서 나타나는 신적이고 날개를 단 헤르메스Hermes, 계시하는 신, 어둠의 주인이며 탁월한 영혼의 안내자이다.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메리쿠리우스는 뱀의 지상적인 원리와 하늘을 나는 새의 공기원리, 해와 달 대극적 요소를 합일하는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Jung, 1985/2004b). 메르쿠리우스는 연금술 작업의 처음이자 끝이다. 메르쿠리우스는 기본물질인 원 질료(prima materia) 즉 처음에 시작하는 물질, 즉 정신의 팽창된 미성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학자의 돌, 신성한 본질로 변환되어야 했다(Edinger, 1972/2016). 원 질료는 자아-자기 정체성, 근원적 팽창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 재료를 연금술 과정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Self) 또는 원형적 정신이 자아와의 오염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구성혼합물을 정제하고 분리시키는 과제에 의식적 노력과 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amuels, 2000/2004).

메르쿠리우스는 자신을 삼키고, 자신을 죽여서 다시 라피스(Lapis)로 소생한다. 그는 태초의 존재, 양성체로서 전형적인 오누이 쌍으로 분리되고 결국은 “새로운 빛(lumen novum), 라피스의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위해 하나로 “융합”된다. 그것은 금속이지만 액체

상태이며, 물질이지만 영이고, 차갑지만 뜨겁고, 독이지만 치유의 물이며, 대극을 하나 되게 하는 상징이다(Jung, 1985/2004b).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달린 날개는 초월, 공기를 상징하고 지팡이는 힘을 상징한다. 마주 보는 두 마리의 뱀은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이원적인 대립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팡이에 감겨 있는 두 마리의 뱀은 자연의 나선 순환, 하지와 동지, 기본적인 힘으로서 말리는 힘과 풀어지는 힘, 연금술의 용해와 응고를 상징한다(Gerold, 2000/2001).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 모습을 찾은 모세의 지팡이는 연금술의 용해와 응고의 과정에 병행한다(Cooper, 1978/19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출애굽기 4장 3~4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물질을 ‘영(靈)’으로 변하게 하여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연금술의 작업과정은 물질의 변환이 아니라 정신의 변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3. 종교적 측면에서 신의 소명을 상징하는 지팡이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에는 노예가 되어 고통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로 하여금 무수한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소명의 길에 들어서자 모세의 보잘 것 없는 지팡이는 신을 보여주는 매개물으로써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뀌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 지팡이는 영적 안내자인 것이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40년은 인생의 시작단계로 애굽의 왕자로서 왕실의 탄탄대로의 삶을 살다가 아주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된다. 혼자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게 된다(Lang, 2005/2007). 그 후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추락하여 나그네로써의 고난의 여정을 걸었다. 그리고 80세인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유대인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본향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된다. 이때 신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는 신의 권위가 부여되는 영적 도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의 손에서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상징하는 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모세의 개성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융 분석가인 에딘저가 강조한 철저하게 소외를 경험한 후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여정을 보여준 것이다.

모세이야기는 개성화를 위한 내면적 투쟁이 집단 무의식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택과



그림 5. 신의 권위가 부여된 모세의 영적 지팡이

<http://blog.naver.com/akgo33>

계획을 받아들이는 소명에서 완성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 도구이며 실제로 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매개물이다. 마실 물이 없어 원성이 높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호렙산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공급한다. 또한 모세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또다시 부활생명의 길을 인도한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던 이 지팡이는 신의 존엄함을 인정하게 하는 영적 매개물으로써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행한 모세는 신화적인 영웅의 속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고, 이때 지팡이는 신의 권능을 상징한다. 모세의 지팡이에 나타난 신성력은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과 육이 신 앞에 간절히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할 때 생기게 된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신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세의 소명은 인도의 영적 아버지인 간디의 삶과 유사하다. 모세와 간디의 삶은 부당함 앞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의 모습인 것이다. 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이끈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신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 신을 만난다는 것은 곧 개성화의 길, 자기실현을 향해 가는 것이다. 소명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은 삶속에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 숨겨진 어려움이 나타나고 하나씩 해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많은 영웅들은 신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연단의 시간을 보낸다. 개성화가 가진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면서 용은 인격의 변환은 언제나 오랜 기간 동안의 시련을 겪은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성화의 길을 통해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돌이켜보고 내면을 정화시킨 사람들은 이제 신의 모습을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성민, 2001).

4. 우주수(宇宙樹)로 재탄생한 부활 상징의 지팡이

우주수(宇宙樹)는 세계 각국의 건국신화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나무로 하늘과 지상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성화된 나무를 말한다. 일명 세계수라고도 하며 북구 신화의 이그드라실(물푸레나무), 수메리아 신화의 홀루푸나무(버드나무), 단군신화의 신단수(박달나무)등이 우주수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민화 일월부상도(日月扶桑圖)에 나타난 우주수, 고구려의 무덤 벽화나 조선시대의 민화에 나타난 우주수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나무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믿었던 흔적이다 (www.forest.go.kr).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거대한 덩치, 재생성은 고대 인류에게 끝없이 재생되는 우주나 영생의 원천을 상징한다. 수많은 자연물 중에 나무만이 지닌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고대 인류부터 나무를 숭배하였고, 그런 숭배 의식이 발전하여 중국에는 우주수나 세계수 또는 생명의 나무처럼 신성한 나무로 형상화되었다. '생명의 나무'는 일반적으로 낙원의 중심에 있으며 재생, 원초의 완전성으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생명의 나무'는 우주축이며, 선



그림 6. 고구려 무덤벽화 일월부상도에 나타난 우주수

<http://blog.naver.com/silvino111>



그림 7. 증거 궤에 보관한 아론의 싹 난 지팡이

<https://cafe.daum.net/ymcdeat>

악을 초월한 일원적인 존재이다. ‘생명의 나무’는 또한 하나의 순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Eliade, 1949/2003).

우주수는 세계의 중심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의 중심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수(World Tree)이다. 베다 시대의 인도, 고대 중국, 게르만 신화뿐만 아니라 원시 종교에서도 나무의 뿌리가 지옥까지 닿아 있고, 가지는 하늘까지 닿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종의 기둥,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둥을 통해 하늘과 땅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 우주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꽃이 피거나 싹이 난 지팡이 또한 우주축으로서의 우주수이다. 우주축은 시간과 공간의 중심점, 만물을 떠받치는 최고점, 만물이 떠받치는 최고점, 만물이 그 주위를 회전하는 축, 규범,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Cooper, 1978/1994). 용에 의하면 우주축을 상징하는 우주수는 삶의 에너지, 개성화 과정, 자기의 상징이다. 나무는 또한 생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신의 몸 그 자체이기도 하다(이부영, 2003).

모세를 도우는 역할로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된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대표적인 우주수를 상징한다. 모세와 아론, 특별히 레위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고라당의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와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라고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고 다음 날 찾아가 보니 다른 지팡이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레위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그가 속한 레위파가 각기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받았음을 인정하게 된다(유동근, 2008).

살구꽃과 살구열매에서 살구의 히브리어 '샤케드'는 '깨어있다. 지키다'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있는 레위지와 중 아론과 그 직계의 대 제사장 직이 절대임을 표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어 지키신다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보여주었다. 부활은 확실한 죽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지팡이(rod)란 가지(branch)와 다르다. 즉, 지팡이는 그 자체가 마른 것이며 죽어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 마른 상태에서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 재탄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생명은 이렇게 죽음을 거친 후 지팡이의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유동근, 2008).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융의 주장에 따르면 '영적인 죽음(la mort spirituelle)은 정신적인 희생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서 유아성을 희생시키고, 어머니의 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원천을 발견해야 한다(김성민, 1998). 희생의 의미는 하나는 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끊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화하는 것, 즉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원래적인 희생의 의미이다. 희생은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다(Samuels, 2000/2004). 새로운 자기, 즉 Self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대극과의 직면, 투쟁, 희생과 극복이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대극은 통합하게 된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재탄생한 지팡이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땅에 심은 지팡이가 나무로 자랐다는 삼목 모티브는 삼목 신화에서 연유된 것으로 세계 각 처에 전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목 모티브와 관련된 나무에 관한 설화가 있다.

경북 영주 부석사에 가면 '선비화'라는 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부석사의 조사당 처마 밑에서(삭제) 있는 이 골담초는 의상대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비화'라고 불리워지는 이 지팡이 꽃에 얽힌 이야기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중생을 위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조사당 처마 밑에 꽂았더니 가지가 돌아나고 잎이 피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열반할 때 예언하기를 "이 지팡이를 비와 이슬에 맞지 않는 곳에 꽂아라. 지팡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우리나라의 국운이 흥왕할 것이다"고 했다. 조사당 축대에 꽂았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버선 모양의 누런 장삼빛 꽃이 피었다. 그 후로 국운이 흥하고 나라가 태평할 때는 늘 잎이 피고 꽃이 피었으나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에는 잎은 있었으나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광복으로 나라를 되찾자 30여년 만에 꽃이 피었다고 한다. 나무의 나이는 1300여년이나 되

는 것으로 추정되나 높이는 불과 1m 30cm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성장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선비화는 처마 밑에 있어서 비와 이슬을 맞지 않는데도 항상 푸르게 자라고 있어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아기를 못 낳는 부인이 선비화의 잎을 삶아 그 물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설이 있기도 하다(김승호, 2007). 이 설화 역시 우주수로서 생명의 무한함과 탄생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신화와 설화는 집단적 무의식의 심리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융학과 분석가인 폰 프란츠는 모든 설화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한 개인의 인격의 핵심이며 궁극적인 지향점인 자기(Self)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김성민, 1998). 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한 정신의 중심이며, 자기는 원형 중에서도 중심원형이다. 또한 개인의 에너지 근원이자 자아(ego) 콤플렉스의 구조화를 촉진하고 안내하는 창조 원리이다. 자기에너지와 연결되면 개인은 깊고 감동적인 신비한 기운을 체험하거나, 매우 특별한(즉, 신성한)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더 큰 전체와 관계 맺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장미경, 2017).

변환으로 재탄생한 부활의 지팡이의 상징성은 음악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융에 의하면 모든 예술작품에는 창작자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는 물론 창작자의 정신 내용 중에서 인간 정신의 집단적 영역에 속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김성민, 1998).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탄호이저>는 연단과 변환으로 재탄생한 지팡이가 소재가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세의 음유시인인 기사 탄호이저는 영주 헤르만의 조카딸 엘리자베트와 연인 사이였는데, 환락,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유혹에 못 이겨 베누스산에서 관능적인 생활에 빠졌다. 그러나 달콤한 생활에 지친 그는 영주 밑으로 다시 돌아온다. 여기서 열린 노래 자랑에서 그는 정육의 쾌락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영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영주는 탄호이저의 애인 엘리자베트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를 풀어주지만, 탄호이저는 속죄를 위해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다. 진정한 회개와 연단으로 용서받은 자의 지팡이에는 새 잎이 돋고 꽃이 피게 되는데 탄호이저의 지팡이에는 새 잎이 돋지 않았다. 변환이 없자 엘리자베트는 탄호이저가 속죄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절망한 끝에 죽음을 맞는다. 엘리자베트의 장례행렬을 본 탄호이저 역시 그녀의 유해 앞에 쓰러져 죽는다. 이때 젊은 순례자들이 잎이 돋고 꽃이 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난다. 이것은 교황이 탄호이저에게 보낸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Johnson, 2007/2012).

5. 지팡이의 상징성을 통해 실현되는 개성화

지팡이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혼돈과 무질서 같은 인생의 캄캄한 어둠에 직면했을 때 신성적 열망으로 새로운 힘을 생성해내는 영적 에너지이다.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받아들

일 때 자기실현으로 이끄는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인간의 삶속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고, 이를 깨닫는 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된다. 이것을 이끄는 길은 바로 개성화의 길이다.

융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에딩저는 개성화의 과정을 자아-자기 축의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지팡이 또한 자아-자기축(ego-self axis)을 상징한다. 자아는 자기와 동일시 될 때 팽창상태이며, 자아와 자기가 분리될 때 극심한 소외를 경험한다. 이러한 반복의 주기는 정신발달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성화 과정에서 특히 인생 후반기에 자아-자기 축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자아의식과 자기 사이의 깊은 연결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아-자기 축이 발달하면 자아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여 더욱 성숙된 태도를 갖게 된다.

개성화는 인간이 진정한 자아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타고난 성격적 요소들과 다양한 인생 경험, 미성숙한 정신적 요소들이 오랜 세월동안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이러한 영적인 변환을 전체성인 자기실현이라고 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신성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전체성을 향한 움직임이 개성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개성화는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에 불구하고 그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장미경, 2017).

개성화, 즉 전체성을 향한 길은 순탄하지 않다. 이것은 '가장 긴 길'로서 곧은 길이 아니라 대극을 이어주는 구불구불한 길이다. 인간은 대극성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전체성을 경험할 수 없다. 미로처럼 혼란스럽게 얽혀 있는 이 길을 안내해주는 카두케우스, 영혼의 인도자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생각나게 한다. 흔히 '다가가기 힘든' 체험이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Jung, 1985/2002).

대극의 일치를 통해 자기(Self)로 가는 길은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세계 속에서 대극적 요인들을 통합하는 "자기(Self)"와 만날 때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을 이룬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장동규, 2010).

개성화는 정신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분화시키고 통합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신의 중심인 '자기(Self)를 실현하여 더 이상 분화되지 않는 '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아는 먼저 페르조나와 완전히 동일시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일부지만 부정적인 특성 때문에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림자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대개 그것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그림자를 반대편 사람의 내면에서만 찾는다. 이러한 투사가 인간의 삶속에 온갖 상처와 분열을 낳는다. 그림자의 실재를 우리 본성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되며, 자기 내면에 있는 열등하고, 불안정하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지 말고, 모두 인식하여 통합해야 한다.

개성화는 온전한 삶을 이해하여 자신의 일부가 신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과 신이 서로 소통하고자 함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비로소 책임을 지는 온전한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이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환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융이 설명한 것처럼 개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가는 목표가 된다. 나선형을 그리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삶의 방향인 것이다.

III. 결 론

상징은 원형적 정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숨 쉰다. 고대부터 시작된 상징 이미지가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상징 에너지의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새로운 형태의 긍정적 삶에 이르도록 변화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자기(Self)는 상징을 통해서 스스로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성장해간다. 상징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개인을 지지하고, 안내하며, 동기화하는 삶의 에너지를 자아(eg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Einder, 1972/2016).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의 강한 힘은 임상에서만 아니라 신화, 종교, 예술을 비롯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모든 행동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과 통합하는 작업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성화 과정은 자기원형의 역동적 측면이다. 자기원형의 에너지와 자아가 연결되면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작동하고 있는 체계가 변화한다.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은 그 동안 사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함으로써 자아에 의해 완전히 소외된 그 사람의 진정한 개성, 자기를 찾아가는 일, 즉 개성화뿐이다. 그런 뜻에서 개성화는 하나의 치유과정이며,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Jung, 1964/2013).

개인의 이러한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전체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도달되는 것이고, 우주축이며 자아-자기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팡이의 상징성을 인식하면서 통합된다. 개성화의 길에서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하는 지팡이의 상징성을 받아들이는 삶은 개성화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다.

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궁극적으로 수많은 대극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그 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정신의 진정한 중심인 자기가 인격의 근원과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며, 이 통합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개성화를 위해 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다 큰 미래적 존재인 ‘온전한 인간 homo totus’이라고 했다(Jung, 1985/2004b). ‘외부로 기울었던 정신적인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그곳을 응시하면 거기서 언제나 우리 삶을 통합시키고, 더 높은 경지로 삶을 이끌어 가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라 하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 내면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인간의 삶 속에 변환과 재생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여 영적 안내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지팡이는 진정한 자기(Self)를 실현 하고자 하는 개성화 과정에 필요한 도구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민 (1998).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 김성민 (2001).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 김승호 (2007). 문화 유산으로 읽는 사찰 연기설화 절따라 전설따라. 서울: 대원정사.
- 김은숙 (2011). 매.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2(1), 15-28.
-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자원부 (2015). 출애굽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유동근 (2008). 민수기. 서울: IMC.
- 이부영 (2003). 분석심리학 - C.G.Jung의 인간심성론 -. 서울: 일조각.
- 이부영 (2004).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 이유경 (2004). 원형과 신화. 서울: 이끌리오.
- 장동규 (2010). 중년기의 위기와 융의 개성화 과정: 야곱과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협성대 석사논문.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한국사전연구소 (1998).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소.
- 김경필, 제민일보 칼럼. 2015.8.3.일자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Thames & Huson. (Trans. into Korean in 1994)
- Eliade, M. (1949). Le mythe de l'éternel retour. Paris; Edition Gallimard. (Trans. into Korean in 2003)
- Einder, E. (1972). Ego and archetype: Individuation and the religious function of the psyche. Boston: Shambhala. (Trans. into Korean in 2016)
- Gerold, D. G. (2000). 50 Klassiker Mythen. Gerstenberg: Verlag. Hildesheim. Germany. (Trans. into Korean in 2001)
- Johnson. S. (2007). Wagner His Life and Music. New York. (Trans. into Korean in 2012)

- Jung, C. G. (1964). Man and His Symbols. (Trans. Into Korean, 2013)
- Jung, C. G. (1985a).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Trans. into Korean in 2004)
- Jung, C. G. (1985b). Traumsymbole des Individuationsprozesses. (Trans. into Korean in 2004)
- Jung, C. G. (1885). Gegenwart und Zukunft. (Trans. into Korean in 2013)
- Kast, V. (1992). The dynamics of symbol: Fundamentals of Jungian psychotherapy.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 Lang, S. (2005). Bible key word. (Trans. into Korean in 2007)
- Samuels, A. (2000). A Critical Dictionary of Jungian Analysis. (Trans. into Korean in 2004)
- Waaijman, K. (2002). Spirituality: Forms, foundation, methods. Brussels: Peeters Pub&Booksellers
- <http://blog.daum.net/ceta21/10102266>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 <http://blop.naver.com/akgo33> 신의 권위가 부여된 모세의 영적 지팡이
- <http://blog.naver.com/silvino111> 고구려 무덤벽화 일월부상도에 나타난 우주수
- <https://cafe.daum.net/ymcdear> 증거 궤에 보관한 아론의 싹 난 지팡이
- <http://www.inven.co.kr/board> 전령 헤르메스
- <http://www.sandplay.or.kr> 우주수를 상징하는 나무
- www.forest.go.kr

투고일 : 2018. 10. 30
수정일 : 2018. 12. 05
게재확정일 : 2018. 12. 27